도내 일부 아파트 · 목욕탕 난방 연료로 벙커C유 사용

'황' 성분 포함 미세먼지 등 발생 대기오염 주범으로 알려져

아파트 대부분 전기 · LNG로 전환… 목욕탕, 관리감독 전무

전북지역 일부 아파트와 목욕탕에서 여전히 난방용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는 황 성분이 포함돼 있어,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

28일 전주시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 아파트 2곳과 군산시, 남원시 등 도내 4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중앙난방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벙커C유 연소 시 배출되는 성분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물질은 '황'으로, 환경부는 '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1990년대 4%였던 벙커C유에서의 황 함유량이 현재는 0.3%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도내 환경단체 관련 종사자 A씨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중앙보일러에서 불연소가 심하거나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황산가스는 물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대량 배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시와 남원시의 해당 아파트 세대수는 700~1,400여 세대까지 대규모 단지여서 인근 주민들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아파트들 보일러 시설의 방진시설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량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등 환경지도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해당 아파트들이 검사 기준을 어긴 경우가 없다"고 답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벙커C유는 가격도 1당 90년대 200원에서 현재 500원으로 올랐고, 멀티집진시설 설치비까지 감안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그동안 벙커C유를 사용하던 대부분 아파트들이 전기와 가스 등으로 난방연료를 교체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는 해당 아파트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목욕탕의 경우는 보일러 규모가 작아 당국의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벙커C유를 사용하는 목욕탕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게 환경오염을 줄이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목욕탕의 경우 시간당 123만 8,000㎉ 이상의 발열량을 내는 보일러만 벙커C유 환경검사 대상이어서 도내 대부분의 목욕탕 보일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벙커C유는 LNG보다 미세먼지가 54배, 질소산화물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배출되며,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은 LPG보다 약 20배 많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정읍원예농협은 정읍시 상동 학산타워 1층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학산로점'을 28일 개장했다.

탄소중립부터 지역경제까지 '1석 2조'

정읍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호 '학산로점' 개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은 정읍시 상동 학산타워 1층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학산로점'을 28일 개장했다.

80평 규모의 직매장은 760여 농가가 생산한 지역의 신선농산물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인 샐러드카페, 야외테라스(2층)가 마련돼 있다.

정읍시 최대 주거 밀집지역인 상동지구에 위치한 직매장은 반경 2km 이내에 다수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교육시설 등이 가까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로컬푸드 소비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원예농협은 지난 2014년 1호점 개장 이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2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중소농 육성,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

이대건 조합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확대로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품질관리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 '맞손'

전북은행 - 네이버파이낸셜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MOU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 및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 네이버 파이낸셜 서래호 책임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 및 금융 혁신을 위한 기술 협력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기획, 금융서비스 제휴 및 마케팅 제휴 ▲기타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진행해 고객들에게 소비자 경험 혁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 및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포함해 보다 긴밀한 협업사업 발굴과 업무교류로 전북은행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온라인 금융소외계층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온라인 콘텐츠 및 기술 플랫폼 경험과 은행이 추진 중인 AI기반 챗봇, 콜센터, FDS 등의 디지털 혁신사업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 및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서래호 책임리더는 "전북은행은 뛰어난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중금리 대출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서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3천만 네이버페이 사용자 및 46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E(중소상공인)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 사회 상생에 앞장서 온 향토 은행으로서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시장 변화에 맞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상품 개발과 비대면 고객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네이버 파이낸셜과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8일 '구매조건부 현지마케팅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사시켰다.

도내 생산 식품 '말레이시아 간다'

경진원, 구매조건부 마케팅 지원 통해 수출 성사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8일 '구매조건부 현지마케팅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사시켰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10위 안에 꾸준히 드는 타겟 수출시장 중 하나로, 한-아세안 FTA 및 발효 예정인 RCEP 등을 활용해 다양한 수출전략을 꾀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로 볼 수 있다.

경진원은 남원에 소재한 GMF社 등 도내 우수기업 8개사의 약 8만5천 달러 상당의 제품 선적을 마쳤으며, 이 제품들은 오는 10월까지 쿠알라룸푸르 등 주요 5개 도시의 10개 마트에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통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출은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사업"을 통한 성과로, 중국과 미국 시장에 치중돼 있던 전라북도의 수출시장 진출 편협성을 개선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전북도와 경진원의 결실로 평가된다.

경진원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현지 시장은 한류 영향으로 한국제품에 호의적이며, 중산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력도 충분해 동남아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제품이 동남아 전 지역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H전북본부, 현장 폭염대책 추진상황 점검 · 안전교육

LH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는 연이은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특별안전점검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全현장 폭염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북본부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2시~5시 사이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현장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경보 시 공사중지 ▲무더위쉼터 설치 및 사워장 제공 ▲온열질환 취약근로자 특별관리 및 응급세트 구비 ▲얼음물·아이스크림·물수건 등 격려물품 제공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대응 조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부터 건설근로자에 이르는 모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전북본부 자체적으로 구축한 'LH 제1호 종합재난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전 최우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제품개발 프로세스 기초과정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 교육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PCB회로설계 및 제품 기구설계, 응용제어 과정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초과정 교육을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품 개발 프로세스 교육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던 제품 제작을 설계부터 제품 외형 그리고 기기 제어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교육이다.

작년 12월에 문을 연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는 지난 4월부터 메이커 문화확산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메이커 육성 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제품 개발 실전과정과 탄소 복합재 제작공법 교육 및 제품 제작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제품 개발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www.maker365.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조달행정 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전북조달청, 우수 업체에 청장표창장 전수

군산 도로시설물 제조 '태평양' 우수 업체로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식회사 태평양(대표 김태수)을 '2021년도 상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해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 태평양은 군산시에 소재한 도로시설물(방음벽, 가드레일 등) 전문 제조업체로, 기술개발 및 매출 증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의 방음벽, 현광방지장치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라북도 선도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에도 선정돼 지역 내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조달업체를 발굴하고, 내실있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도내 제조업체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꾸준한 상품개발과 기술연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백제문화제 홍보관 운영… 상생협력 나서

LX국토정보교육원 - 충남 공주시, 업무협약 체결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윤동호)과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27일 공주시청 상황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를 거쳐 시민·행정 분야 5개, 문화·관광·체육 분야 5개, 경제·농촌 분야 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관 간 상호 홍보 지원 ▲시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교육시설 개방 및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역사유적 관람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공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계 및 강사 Pool 공유 ▲백제문화제 등 주요 축제 시 홍보관 운영 ▲지역특산품 공급확대 추진 등이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임업경영체 우수기관 · 직원 표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27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 유관기관 및 우수직원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하며 노력한 유관기관에 감사패(하동군산림조합·해남군산림조합)와 신청서 등록대행 등 찾아가는 행정업무로 원활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힘쓴 직원에게 표창패(산청군산림조합 천흥락, 순창군산림조합 박태원, 강진군산림조합 정환석)를 전달했다.

한편 조준규 서부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